

박서준, 예능까지?... '드영에' 그랜드슬램

(드라마·영화·예능)

드라마 '쌈마이웨이' 영화 '청년경찰' 흥행 tvN '윤식당2' 시청률 14.1% 대박 데뷔전 서빙 알바 경험 등 관찰예능서 발휘

연기자 박서준이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예능까지 섭렵하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내보일 기회를 영리하게 포착해 거둔 성과다. 작년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성공, 첫 주연영화 '청년경찰'의 흥행이 새해 '윤식당2'로 이어졌다.

박서준의 첫 고정 예능프로그램인 tvN '윤식당2'가 5일 방송한 1회분부터 무려 14.1%(전국가구·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tvN 역대 예능 사상 두 번째 기록, 최고 기록인 '삼시세끼-어촌편1'(14.2%) 돌파는 시간문제다.

'윤식당2'가 첫 회부터 시청자를 사로잡은 데는 지난해 방송한 시즌1의 인기도 있지만, 시즌2에 새얼굴로 참여한 박서준을 향한 궁금증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예능에 일회성 게스트로 참여하긴 했어도 고정 출연은 처음이란 사실도 희소성으로 작용했다.

시즌1 멤버인 신구의 빈자리에 대신 투입된 박서준은 스페인 가라치코에 차린 한식당에서 기존 출연자인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와 어우러져 막내 역할을 매끄럽게 해냈다. 따로 식당에

서 사용하는 용어 위주로 스페인어를 익혀 활용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의 진가는 지난해 5~6월 방송한 KBS 2TV 드라마 '쌈, 마이웨이'에서부터 시작됐다. 드라마 주연으로 처음 나선 그는 시청률 12~13%대를 이끌면서 성공을 주도했다. 이어 8월 내놓은 영화 '청년경찰'은 여류 극장가 대작들과 경쟁 속에서 565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역시 첫 주연영화로 거둔 흥행으로 실력 증명과 동시에 몸값을 높였다.

계속되는 성공에는 '운'도 작용한다. 20대 중반에 데뷔한 탓에 처음엔 '늦깎이 신인'이란 시선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연기자를 준비하며 쌓은 과거 다양한 경력 때문이다. 이진주 PD는 "박서준은 아르바이트를 오래해서 일이 몸에 체득돼 있다"며 "오랜 자취 경험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거지나 재활용 쓰레기 처리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번 '윤식당2' 제작진이 박서준을 발탁한 이유 역시 데뷔 전 다양한 경험 때문이다. 이진주 PD는 "박서준은 아르바이트를 오래해서 일이 몸에 체득돼 있다"며 "오랜 자취 경험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거지나 재활용 쓰레기 처리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윤식당2'가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한 만큼 남은 9회 분량이 진행되는 동안 박서준을 향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서준의 올해 연기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경찰' 제작진과 새로운 협업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박서준은 지난해 첫 주연 드라마 '쌈 마이웨이' 첫 주연영화 '청년경찰'의 성공에 이어 첫 예능에서도 기록적인 시청률을 이끌어내며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숫자뉴스



그룹 세븐틴 팬미팅 '세븐틴 인캐릿 랜드' 티켓을 사기위해 예매사이트에 동시 접속한 팬 수. 2월2·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여는 세븐틴은 멜론 티켓에서 3일과 5일 두 차례 예매를 실시했고, 모두 1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해시태그 킷



여왕대접 받은 엄정화

21세기 여왕의 등장이다. 가수 엄정화가 남성 스타들에 둘러싸여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 강호동 김희철 김영철 서장훈 민경훈 이상민 이수근(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은 두 손을 펼쳐 엄정화를 가리키며 그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했다. 엄정화는 만면에 미소를 띠우며 행복감을 드러낸다. 그는 이들과의 만남에 "이렇게 아이처럼 웃고 떠들고 춤추고 게임한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넘치게 사랑받았다"며 고마움의 메시지를 남겼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엄정화 #아는형님 #홍일점 #여왕대접

이정연의 꼬리물기

'방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방탄소년단. 솔직히 그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들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 기억 속에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였고, 첫 인상은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의 열기가 최고조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에도 숫자로 증명되는 '팩트'로만 전할 뿐이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잘' 알게 되겠거니 하고, 그들의 매력을 찾는 일은 잠시 뒤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앙코르 콘서트를 시작으로 그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연말 열린 방송 3사의 가요 축제에서도 제작진들이 방탄소년단의 무대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짧은 동영상 조회수도 다른 가수들을 압도했다. 이들의 인기 기반이 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일상이 소개된 '방탄 밤'부터 팬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 각종 '직캠'들까지.

오상한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자꾸 다른 걸 더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팬들이 말하는 '입덕'의 순간이다.

이들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이들이 인터뷰한 자료를 찾아봤다. 정확히 2015년 4월28일 오전 10시, 이튿날 발매된 '화양연화 파트1' 홍보차 댓바람부터 스포츠동아를 찾았다. 그들은 당시 데뷔 3년차를 맞아 "이번엔 뭔가 제대로 보여줄 때"라고 했다. 하지만 멤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감기에 걸려서인지, 잠이 덜 깨서인지, 그런 의지를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그들에게 물었다. 왜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자기반성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들 역시 "뭔가 '한방'이 없어 아쉽고 답답했다"고 했다. 팀 이름처럼 뭔가 때려 부시고, 강렬하고 진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임팩트만 주려했지, 우리 음악을 찾아 듣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제법 진지한 설명까지 내놓았다.

당시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음악방송 1위. 갈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랜 미처 알지 못했다. 세계무대에서 '노는' 방탄소년단이 되리라고는.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annjoy@donga.com

애니 코코, '제2의 겨울왕국' 예감

개봉 전부터 주제가 '리멤버 미' 화제 최적이 1월 공개·북미 사전 흥행 답아

애니메이션 '코코'가 '겨울왕국'과 닮은꼴 흥행 조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애니 흥행보증수표'로 통하는 월트디즈니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개봉 전부터 화제인 주제의 인기, 가족 관객을 집중 공략할 개봉 시기, 앞서 북미에서 거둔 높은 성적까지, 2014년 애니로는 처음 1000만 관객을 기록한 '겨울왕국'과 여러모로 닮았다.

11일 개봉하는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멕시코 소년 미구엘이 전설적인 가수가 남긴 기타를 잡았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모험을 그렸다. '겨울왕국'과 마찬가지로 노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주제가 '리멤버 미'는 벌써부터 인기가. '겨울왕국'의 명곡 '렛 잇 고'를 작곡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로버트 로페즈·크리스

틴 앤더슨 부부가 만든 신곡이라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극한 결과다. '기억해줘'라는 제목으로 따로 제작된 한국어 버전은 가수 윤종신이 불렀다.

애니 흥행의 최적기로 통하는 1월에 개봉하는 상황 역시 '코코'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겨울방학 등 가족단위 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그로 인한 수혜가 상당할 전망이다. '겨울왕국' 역시 1월16일 개봉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애니로 각광받으면서 관객을 빠르게 모은 덕분에 1029만 명을 동원했다.

국경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담은 것도 '코코'의 강점으로 꼽힌다.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졌지만 가족에 헌신해온 고조할머니부터 증조할머니의 등장, 어른들을 향한 공경이 주요 메시지다.

이와 함께 외화의 국내 흥행 가능성을 점치는 주요 기준이 되는 미국 비평사이트 로



1월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코코'

튼토마토가 집계한 '신선도 지수'에서 '코코'는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역대 애니로는 가장 높은 97%. 앞서 '겨울왕국'이 89%를 기록, 국내서 흥행한 사실과 비교하면 '코코'를 향한 기대를 거두기 어렵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코리아는 7일 "작년 추

수감사절에 북미에서 먼저 개봉해 3주 연속 1위에 올랐고, 멕시코에서는 역대 흥행 1위인 '어벤저스'의 기록을 넘어섰다"며 "중국 개봉 당시에는 조상을 향한 풍습을 담은 가족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지 관객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1 '책상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그 대사가 사실이라니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영화 '1987'

2 박종철은 왜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나-선배 박종훈 행방 캐묻기 위해 물고문

3 4·13 호헌 선언은 무엇인가?-간선제로 정권이양...직선제 개헌에 기름



영화 '1987'

공분실'로 연행됐다. 서울대 민주화추진위(민추위) 및 반제반파소 민족민주화투쟁위(민민주)와 관련해 고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터였다. 경찰은 민주위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선배 박종훈(전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16~18대 총선 출마 낙선)의 행방을 캐물으며 그를 물고문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끝내 숨겨졌다.

박종철은 1월16일 아침 경기도 벽제화장장에서 "하얀 젓가루로 변해 경의 가슴에 안겨졌다". "경찰이 마련한 검은색 승용차"에 오른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근 "임진강 지류"에 잠들었다. 아버지 박정기 씨는 "아들의 유골가루를 산 흰 종이를 풀고 잿빛 가루를 한 줌 한

줌 쥐어 하염없이 셋강 위로" 뿌렸다. "아버지 박씨는 흰 종이를 강물 위에 띄우며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철아, 잘 가그래!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라고 통곡을 삼키며 허공을 향해 외쳤다'.(이상 동아일보 1987년 1월17일자 보도)

●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구의 대사인가? 실제인가?

'1987'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조 작한 박 치안감은 기자들 앞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이라는 말을 내뱉는다. 일부 젊은 관객은 이 대사가 극중 스토리 전개를 위한 허구의 대사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1월15일 이렇게 밝혔다. "치안본부는 박군이 연행된 뒤 오전 9시 16분경 경찰이 제공한 밥과 물나물국으로 아침 식사를 조금이다 '전날 술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말해 조사관이 갔다 준 냉수를 몇 컵 마신 뒤 오전 10시50분경부터 취조실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오전 11시 20분경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하며 책상 위로 쓰러졌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87년 1월16일자)

● 호헌선언은 무엇인가?

'1987'에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

권을 교체하겠다"고 말하는 TV중계 화면이 등장한다.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민심에 반하는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젊은 관객에게 장면은 대체로 낯설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이른바 '4·13 호헌 선언'이라 불리는 당시 담화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었다.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전 대통령의 언급은 유행어가 되어 권력을 풍자했다. 수많은 대학교수들과 단체들이 시국선언문을 내 '호헌 철폐' 및 직선제 개헌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분으로 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박정희에게 표를 몰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일명 '체육관 선거'의 시작이었다.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12·12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같은 방식으로 1980년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들은 이듬해 다시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 5000여명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해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식 대통령 간선선거 방식을 모방했지만 이미야권의 정치인과 민주인사들을 무력으로 제거한 뒤였다.

윤여수 전권기자 tadada@donga.com